

##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아! 그날이 오면

### 「학력사항」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이상민

### 「경력사항」

- 제8회(1974년)외무고등고시 합격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30년 봉직)
- 미국 국무부 특별 법률 고문(Legal Consultant)
- 국제하천위원회 의장(COLD)
- 아셈(ASEM) 국제인권회의 의장
- 미국 국제법학회 국제법 교육위원장
- 세계우주총회본부(AC), 세계우주법기구(ILSL) 상임이사
-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 현) 교육문화원 원장

## I. 동방의 아름다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1966년 고향 향리에서 Jean Jacques Rousseau의 Emile과 Pestalozzi의 사랑의 학교 이야기를 읽으며 교육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운동장 국기계양대 밑에 줄달음치며 노는 중학생들은 선량하고, 조그만 교사에서 열강하는 선생님들은 거룩하지만 순박하나, 무식한 농민을 설득하고, 공손하나 우직한 씨족과 타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밀어닥치면 부영이 우는 겨울밤, 나와 남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서울법대에 진학할 것과 외교관이 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관리가 되어야 학교사업도 하기가 쉬운 것이며, 향촌과 향민을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문학과 예술 방면에 취미가 대단했고, 자라면서부터 어학과 역사 그리고 국제문제에 흥미가 많았던 자신을 생각해서도 외교관

이 되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합당하며,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방랑기질이 핏속에 용솨음치는 자신을 생각해서도 그 길이 의미있는 생을 사는 가장 좋은 인생행로라고 여겨졌습니다.

## II. 기어코 하고자 하면, 귀신도 이를 피하는 법이다

목적물을 잡기 위해서는 사냥매를 굶겨서 보내야 한다는 엄친(嚴親)의 정책에 따라, 1962년 봄, 검은 안개 낀 서울에 진입하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서울에 와서, 꿈에도 그리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자라난 나는 신문팔이로 생활터전을 잡고, 그 해 5월 30일 새벽 나는 고향을 향해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신문팔이와 아이스 케이크 장수와 가정교사를 하면 연명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날 새벽 북악산에 올라, 허공에 독립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비둘기 등빛갈로 물들어간 고향 하늘 밑을 향해 adieu를 고했습니다.

그로부터 투쟁과 저항의 생활은 시작되었으며, 비타협 무저항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기름(금전)이 없어 발이 묶이는 기혹선상(飢酷線上)에서도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법대 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5수를 하면서도 끝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할지라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제일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년간은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논산행 열차를 탄 것도 이 시절이었고, 고향 향리에 중학을 설립한 것도 이 때였으며, 3개 국어 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을 획득한 것도 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69년 꿈에도 그리던 서울법대 법학과에 입학하니, 고교 동기들은 모두 졸업해 나가고, 나만 홀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 III. 인생은 마라톤 길, 힘차게 달려라

1969년 5월 6일, 교양과정부 시절, 엄습해 오는 허탈감과 해결할 수 없는 생의 모순과 풀리지 않는 생의 의미에서 나는 음독(飲毒)을 하였습니다. 달리는 차창에 어리는 신록의 조용한 아우성을 보며, 땅이 기울고 하늘이 도는 가운데, 나는 나의 조국의 강토가 화려강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강산이 천국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 열나게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숨을 거두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달려라 달려라 거룩하게 산화하자!’

자신이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역량이 양성돼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논리였으므로 나는 우선 경제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5수를 한 것도, 학교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결국은 경제력이 약한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겨레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잘못하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남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본에 항복하고, 자본축적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야 하

며, 그래야만, 이 백성, 이 강토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자기애이며 조국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4년 동안 1천불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교강의가 끝난 다음, 밤중까지 시내를 누비며 열강을 토하였습니다. 일요일이면 새벽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마라톤 열변을 강행하였습니다.

누구는 그 무렵 산에서 술향기에 취해 있는 동안, 이슬이 구르는 이마에 붉은 눈을 휘번득이며,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도록 거리를 질주하는, 커다란 점은 가방의 그 청년은, 때로는 사람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무엇을 쟁취하려는 자는 남이 보기에 광기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의 정열을 퍼부어야 되는가 봅니다. 경제 성장률은 가속화하여, 애당초의 계획을 뒤엎고, 1년 만에 1만불의 소득을 올리고,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억이 있으면 손실이 있는 법, 그토록 달리던 인간 기관차는 하마터면 한쪽 무릎을 꿇을 뻔 했습니다. 황소는 한 번 치면 13배의 순간적인 견인력이 나온다는 축산각론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사람은 긴장하면 5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중무휴의 강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삼청공원으로 마라톤을 하고, 하루에 네차례의 식사를 하고, 값진 한약을 먹으면서 행군하였습니다.

#### IV. Du eile nicht, aber raste nicht! – 그대여 서두르지 마라, 그렇다고 쉬지도 마라–

그러는 가운데도 대학생활 만큼은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교관을 설득하여 교련시간 대신에 자두꽃이 가득한 태능으로 술마시러 가기도 하고, 휴강 잘 시키고, 미팅주선 잘 하는 유명한 과대표역을 하였으며, 데모대열에 끼어 애국심을 진작시키는 일은 여간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는 법대 국제법 외교회회 회장으로서 모의재판을 강행하였으며, 법대 도서관 자리싸움에서는 거창한 격문을 써붙여 연전연승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좀처럼 공부하는 일이 없이 뛰는 나에게는,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으므로 나중에는 헌 가방을 늘 두고 다녔습니다.

여자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미대의 Villa와 법대 앞 낙산다방을 곧잘 출입하고, 도서관 date를 하기 위해 문리대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틈만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 V. 艱難はおねを玉になす – 간난은 나를 옥으로 만든다 –

1972년 5월 30일은 나의 독립 10주년 기념일! 그리고 경제개발 3개년의 결실을 맺는 날! 나는 이날 홀로 북악산에 올라 아카시아 꽃 향내를 맡으며 10년전 어린 소년으로서 고향을 향해 독립을 선포하던 곳을 찾아 갔습니다. 그 옛날 내가 쓰다듬던 조그만 아기술은 이제는 커다란 소나무가 되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10년, 고향을 하여 10년! 나

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고향 학교를 건설한 것과, 3개 국어 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경제건설 3년만에 5만불의 자본을 축적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목숨 만큼이나 귀중한 자본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남들이 명동거리 Bar에서 정신이상에 걸려 신음하는 동안, 나는 명동거리 증권시장에 출근하였고, 남들이 교외에서 술향기에 취해 정신이 몽롱할 때, 나는 영동지구를 누비며 부동산 투자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세간에는 내가 강의로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여 부동산과 증권에 손을 대어 청년재벌로 성장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들지 못할 자본을 대학 4년 동안에 이룩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고시공부를 하지 않는 법대의 이단자로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후배들도 친지들도 말렸습니다. 모두들 이제야말로 진정 위대한 이상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때까지는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3년 9위로 법대를 졸업하면서 고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1차시험을 치르고, 2차시험에서는 예상 외로 선전하였으나 국사에서 '최씨정권의 권력기구'를 좀 뼈다귀하게 써서 과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음 속으로는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일단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나니,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씩 돌씩 나를 비난하고, 나의 실력을 불신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는 이도 나의 눈길을 피하려 하고, 후배 중에도 배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대도서관의 좋은 자리에 가방만 맡겨두고 다니는 나는 실패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결혼문제도, 출세문제도 이 모두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고시에서 자신을 얻은 나는 다음 고시에서는 꼭 합격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 VI. 爲偉大的 勝利而奮鬥!—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자—

확고부동한 목표 설정과 치밀한 작전계획, 그리고 일로매진은 승리의 공식일 것입니다. 전부터 나는 고시에 대하여 일종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후배들은 내가 외무고시에 가장 호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우겼으며, 나도 실전경험에서 자신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학이라면 남달리 흥미가 있었지만, 5수를 하는 동안 영어와 독일어는 상당한 기반을 잡았습니다.

공부한답시고 세계문화전집을 영문판으로 보았고, 단편과 수필집이면 무엇이든 읽었으며, erotica도 100여 권을 독파하였습니다. 독어원서로는 Nietzsche와 Schopenhauer의 저서도 많이 읽었으며, Goethe와 Böll의 작품을 주로 보았습니다. 서울법대에 입학한 후로는 숨막히는 바쁜 틈을 쪼개어 金林—男 선생님께서 일본어를 사사받아 일본어의 기반을 잡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사람은 동북아 3개국어에 능통할 필요가 있으며,

Asian Wisdom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중국어를 배울 결심을 하였습니다. 북경대학을 나오신 이윤중 교수를 찾아뵙고 우리 나라에서 선생님 다음으로 북경어를 잘할 때까지 가르쳐 주십사고 간청하여, 그로부터 4년 동안 북경 중국어를 개인지도 받아,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를 능가하는 중국어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나의 대학시절의 최대의 기념비였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억세게 돈을 벌 필요도 없었으므로 다소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으므로 생후 처음으로 학문의 세계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교수님과 토론하며 한 분야를 개척하여 논문을 쓰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학문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인가, 유능한 외교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한기 교수님과 오랜 시간을 두고 토론한 끝에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외국에 유학을 하여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학자인 유능한 외교관이 되는 것으로 나의 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장물대추 익는 단풍 좋은 가을날에도, 도서관 서가에 파묻혀 자료수집에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3관이 넘는 커다란 검은 가방 두 개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 양쪽 겨드랑이에 책 보자기를 끼고 도서관을 출입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도서관에다 캐비닛을 사다 놓고 책을 두고 다녔으나, 1973년 늦가을이 되자 단식 투쟁이 시작되어 도서관에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때 도서관에서 연구한 것은 대학원 석사학위 준비논문이었지 고시공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Ⅶ. 속전속결은 승리의 관건이다

1973년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대 도서관에서 철수한 다음, 안국동 집 근처의 건물에 방을 하나 빌리고,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비밀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논문 네 편을 쓰고, 다음에 속전속결을 하기로 마음먹고 논문작성에 착수하여 1월 말까지 '중공 국제법'동북아 대륙붕 분쟁'점각열도 분쟁사건'남지나해 군도분쟁사건'의 네 편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밀어닥친 세계 Inflation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로구 팔판동 125번지에 4만불을 들여 저택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느라고 1월을 허송하였습니다. 1월 말 미국 Harvard대학에서 나의 논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2월 초부터 고시준비를 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논문 네편의 영역에 착수, Harvard로 보내고 난 것이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없어졌으며, 작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응시원서는 제출하였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치지 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5수를 하고 서울법대에 입학한 시험의 Veteran인 내가 이런 때 용기를 잃을 리는 없었습니다.

어학 세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때리고, 다른 과목을 50점씩만 맞으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영어, 독일, 중국어는 공부하지 않는다. ② 국제법은 대학원의 전공이므로 또한 같다. ③ 국사와 외교사를 합쳐서 역사로 하고,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한 과목으로 한다. 이리하여, 역사와 경제학의 두 과목으로 줄여서 40일 격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법대에 다니면서도 나는 학교강의에 충실하였습니다. 경제학만 하여도 임원택 교수님의 강의를 두 번이나 듣고, 유득준 교수님의 강의를 두 번이나 들었으며, 상과대학에까지 원정하여 Lipsey 교수님의 경제원론을 두번씩이나 청강하였습니다.

국사도 양영환 교수님 강의를 두 번이나 듣고, 외교사는 동덕모 교수님의 강의를 세 번씩이나 들었으며, 박준규 교수님의 강의도 한 번 들었고, 田中直吉 교수님의 외교사를 한 번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속전속결 전법이 들어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기본서를 보아야 한다 하여 이정환 교수님의 신경계원론으로 개념을 익히고, 김윤환 교수님의 신경계원론을 1독하였으나, 문장이 깨끗하지 못하고 틀린 것이 많아 연일 분개하면서 읽고, 잘못된 곳은 박박 지우고 다시 써 넣었습니다. 김덕중 교수님의 거시이론인 국민소득론과 남덕우 교수님의 미시이론인 가격론을 샀으나, 책이 너무 거창하고 반대할 뿐 아니라 잔소리기가 많아 좀 보다가 집어 치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정도영 교수님의 국제경제학을 한 번 정독을 하고, 제목을 암기하였습니다. 외교사는 주로 일본책을 보고 Carri□A Diplomatic History of Euope, 박관숙 교수님의 세계외교사, 박준규 교수님의 분단과 통일, 신기석 교수님의 동양외교사를 그 전부터 읽어 두었습니다. 국사는 한국통사를 한 번 보았으나 신통치 않고, 한국사신론을 보려다가 그만두었고, 민중서관에서 나온 국사정해라는 방대한 책을 재미있게 보았으며, 양영환 교수님의 강의에 충실하고, 그 분이 쓴 한국사강좌를 상쾌하게 읽었습니다.

나는 책을 1회독 밖에 안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천연색을 동원하여 밑줄을 긋고, 요약 분석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이 있으면 표시를 해 두었다가 교수님께 캐물어서 완전하게 알아 두었습니다. 사실, 시간만 충분하다면 다독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한 번씩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2월 17일 오후부터 격전에 들어간 나는, 태어난 후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때까지 강행하던 Arbeit도 그만두고 40일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밤 10시 반에 저녁을 먹고, 11시에 집을 나서서 연구실에 와서 1시까지 버티고, 밖에 나와 운동을 하고, 다시 격전을 벌이다가 2시 반쯤해서 자고, 5시경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새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연구실에 와서 11시까지 책을 보다가 잠시 나와서 바람을 쐬고, 다시 들어가서 2시까지 버티었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전화연락을 취하고, 복덕방을 찾아다니며, 우리 집을 좀 팔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흥정을 하기도 하다가 열린 연구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휴식을 잠시 취하였습니다. 다시 6시까지 공부하다가 8시에 집에 와서 전화를 받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연구실로 가서 10시 반까지 버티었습니다. 이러기를 50일을 하고 4월 6일 정도 드디어 고시가 끝나고

비로소 이 강산에 봄이 찾아 온 줄을 알았습니다.

국제경제학 두 문제를 다 맞추어서 너무 좋아하다가 지나치게 자세히 쓰느라고 한 문제를 반 밖에 못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범하게 본 셈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내가 세웠던 작전계획은 그대로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81.66, 독어를 84.33, 중국어를 86.66을 맞았으며, 다른 과목도 예상 외로 점수가 높아 준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외무고등고시를 치고 싶은 사람은 대학 4년간 어학을 흘려 넘치게 해 놓고, 나머지 과목은 6개월만 파면 누구를 막론하고 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Ⅷ. 그 날 금의환향하고 영웅으로 개선

5분마다 걸려오는 축하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고향으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들 상면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했어요! 아버지께도, 은사 선생님께도 전문을 보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향에서 온 전문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영웅 장하다. 만리장성을 언제나 보게 되느냐? 나와 함께 동정호를 보고 싶구나...’

‘지금부터 12년 전,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랑 영어사전을 들고, 조그만 이불을 메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아들 상면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이제 어머니가 사달라는 금시계를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서울법대에 입학했을 때도 어머니께 차마 사드릴 수 없었어요. 고향집에 도착하면 달이 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머리 강변에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강변에 서서 이마에 손을 가리시고 흥거리 지평선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엄마의 젖꼭지를 빨간 잇몸으로 훑던 아기 상면이를 생각하시며 어머니께서 그 오랜 동안 아들을 생각하시며 수천만 송이의 진달래를 따 모아 만드셨다는 진달래 술을 오늘 비로소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서울 팔판동에 백평이 넘는 커다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 내년에는 미국 Harvard로 가게 됐어요. 그래도 12년이란 긴 세월이지요. 어머니, 지금 지평선에는 달이 뜨고 있어요. 어머니! 아들 상면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했어요!’